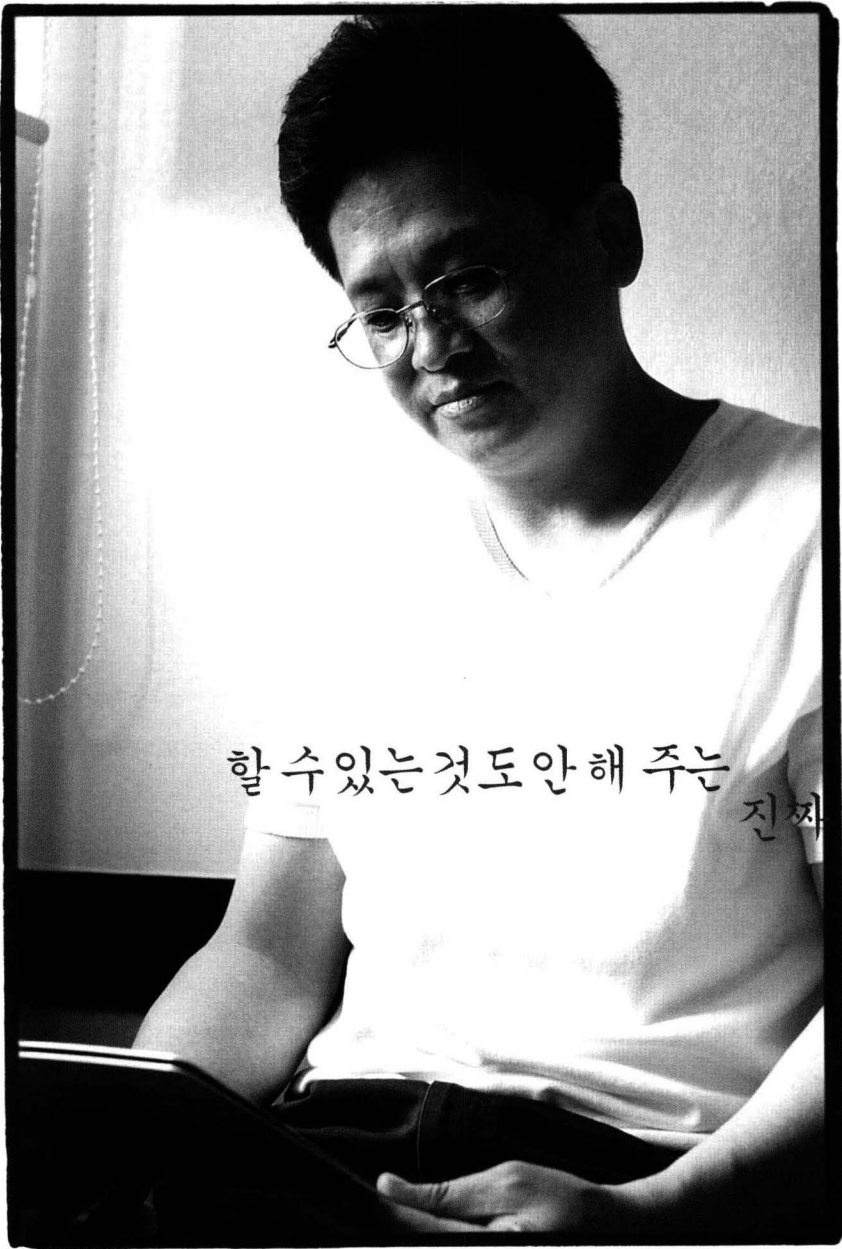


오주협



할 수 있는 것도 안 해 주는 진짜 나쁜 아빠들에게 고함

《'아빠' 라는 이름의 행복》 낸 베넷아이 운영자 오주협

'검손은 곧 미덕' 이라지만 지나친 검손은 외려 실례를 범한다. 그런 논리라면 평범한 아빠 오주협(42) 씨는 큰 실례를 범하며 사는 사람이다. 비영리 육아 사이트 베넷아이(www.beneti.com)에 접속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개인재산을 털어 사이트를 운영하는 그에게 박수를 보내도 무슨 소리냐며 손사래를 치니... 그런 오씨가 변명(?)처럼 내놓은 사연을 전하면 이렇다.

"두 딸과 함께 캐릭터를 만들고, 콘텐츠를 구상하던 시간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베넷아이 덕분에 우리 가족이 더 화목해질 수 있었죠. 분명 제가 좋아서 한 일이고 매우 이기적인 일입니다."

듣고 보니 변명의 여지가 전혀 없는 소린 아니다. 그건 그러하고 이쯤 되면 오주협 씨를 포함해 약 28만 명 회원들에게 행복을 전해준 베넷아이가 과연 어떤

매력을 갖고 있는 곳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2002년 5월 5일에 문을 연 베넷아이beneti는 Baby Network Identity의 준말. 문을 열면 사람들은 세 번 놀란다. 상업용 배너가 없다는 것에 한 번, 의견을 공유할 게시판이 전혀 없다는 것에 또 한 번, 관리자의 연락처가 없다는 데 다시 한 번. 유익한 것은 분명한데 낯설다 못해 '불친절' 하기까지 하니 온갖 의문만 늘어난다. 회원들의 마음을 알았는지 오주협 씨는 최근 출간한 《'아빠' 라는 이름의 행복》에서 그 의문들을 속 시원히 풀어주고 있다. '나는 아

빠가 되기 싫었다!’는 제목의 프롤로그로 못 독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한 그는 육아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를 뜻밖의 어린 시절 이야기로부터 털어놓았다.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아버지 한 분에 어머니가 세 분이었으니까요. 아버지는 제게 어떤 사람도 배풀지 않으셨죠. 지금까지 아버지와 대화를 나눈 시간을 합쳐도 24시간이 안 될 정도입니다. 밖으로 걸돌기 일쑤였고 사는 게 고단하고 힘들단 생각에 대학 땀 자살을 결심하기도 했습니다.”

삶의 의미를 몰라 방황하던 오씨가 자신의 삶 속으로 들어온 것은 역설적이게도 가정을 꾸리게 되면서부터다. 아버지처럼 되기 싫었기에 ‘아버지’란 이름을 거부했던 그는 외려 아내와 자녀를 맞이하며 그 이름을 자랑스럽게 받아들인다. 물론 그 역할이 결코 쉽지만은 않았다. 결혼 후 덜컥 생긴 첫아이가 세상에 나오던 날 산모만큼 두려워해야 했고, 아빠가 겪는 산후우울증도 견뎌내야 했다.

“아내와 아이들을 통해 처음으로 나와 가족, 내 삶을 사랑하게 됐죠. 어느 날 디자인 전공도 살리고 아이들과 재미있게 놀 프로그램을 궁리하다 베넷아이를 만들어봤어요. 저 즐겁자고만 들었지만 한편으론 다른 가족들도 컴퓨터 앞에서 마우스 움직이며 함께 놀아보길 바랬죠. 어린이 날 선물 사주는 게 부모의 도리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친구같이 함께 대화하고 놀아줄 수 있는 아빠입니다.”

베넷아이에는 신기한 그림들이 많다. 스피커를 켜면 재밌는 소리가 들린다. 오른쪽 하단에 적힌 1번부터 5번까지의 숫자를 하나씩 클릭해 보면 수학을, 표정놀이, 소리놀이 등 다양한 학습놀이 속에 빠질 수 있다. 움직이는 이미지, 노래 등으로 집중력을 높여주는 프로그램들은 이제 막 아이를 갖게 된 부모부터 3,4살, 많게는 7살 아이들까지를 대상으로 하는 것들이다. 발달단계에 맞춘 게임식 프로그램이 있으니 아이들은 즐거워했고 프로그램들이 모두 ‘무료’로 제공되니 당연히 엄마들 사이에서 소문이 날 수밖에 없었다. 2년여 사이 회원수가 27만 명 이상으로 늘어나자 뜻하지 않은 사건도 발생했다. “곧 유료로 전환하는 거 아니냐?” “이런 사이트가 무료로 운영되기 때문에 콘텐츠 시장이 죽는 거야”라는 우려와 비난의 목소리도 들려왔고, 이름만 들어도 누구나 알 만한 육아관련 회사 CEO에게 동업 제안도 여러 번 받았다.

“후원, 투자는 사절입니다. 투자가 있으면 지금처럼 자유롭고 즐겁게 운영할 수 없죠. 저도 사람이니 뜻하지 않게 순수한 마음이 퇴색될 수 있을 테지만 베넷아이는 절대 안됩니다. 유료 육아 사이트 게시판을 가보면 정말 가관이네요. 남편이나 시댁 험뜯고 신세한탄 늘어놓는 사람들이 많죠. 그게 보기 싫어 게시판도 안 만든 겁니다. 그저 제가 아주 가끔씩 메일로 보내는 잔소리만 들어주면 됩니다.”

‘잔소리’라? 《‘아빠’라는 이름의 행복》의 후반부를 펼쳐보면 그 잔소리에 대한 궁금증이 풀릴 것이다. 책의 전반부가 오씨가 베넷아이를 차리기까지의 기록이라면 후반부는 구체적인 육아 이야기로 넘어가 아빠의 고충, 부모노릇의 중요성, 아빠들의 문제 등 조언으로 둔갑한 삶은 소리 몇 마디를 담고 있는 까닭이다. 오씨는 스스로 “내 주제에 할 말은 아니지만”이라며 잔소리를 시작하나 꽤 설득력 있는 말들이다. 서투른 칭찬으로 아이에게 부담을 주지 말자, 아버지가 늘 강한 존재일 거라는 사실을 주입시키며 아버지 스스로 부담을 느끼지 말라는

대목 등이 인상적이다. 때론 자신의 약함도 인정하고 좌절할 경험담도 들려주는 인간미 넘치는 아빠가 되라는 의미란다.

“돈 벌어오는 아빠가 좋은 아빠라고 착각들 합니다. 전 외려 베넷아이 만들면서 ‘아빠가 재미있는 아이들 사이트’를 만들 건데 너희들 먹고 싶은 것도 줄여야 하고, 갖고 싶은 것도 많이 못 사줄 거야”라고 말했어요. 아이들은 아빠가 행복해한다면 자신들도 좋으면서 아이디어까지 제공해주더군요.”

베넷아이 운영자 오주협 씨의 본명은 이번 책으로 처음 대중에게 공개됐다. 대학 때 디자인을 전공해 북디자인, 출판사 경영 등 출판 관련업에 종사해왔던 오씨의 현재 직함은 웹 프로그램 컨설팅업체 대표. 하는 일이 많기도 하나 그보다 더 많은 아이들에게 베넷아이 프로그램을 전하고 싶은 까닭에 요즘은 병원, 장애인 단체 등 이 사이트를 맡아줄 곳을 모색하는 중이다. 물론 콘텐츠 업데이트와 운영 등은 여전히 오씨의 몫으로 남겨둘 생각인데 이처럼 웹세상과 책세상을 넘나들며 오씨가 전하려는 이야기는 결코 특별하지 않다. 육아란 아이와 함께 웃고, 놀고, 대화하는 것이고, 할 수 있는 것도 안 해주는 부모가 진짜 나쁜 부모라는 것. 이 육아론으로 얼마나 많은 우리네 아빠들이 행복을 찾게 될지 자못 기대된다.

한편 책의 인세 전액은 아동학대 예방사업에 앞장서는 굿네이버스에 기부될 예정. 또 한번 좋은 일을 하려는 그에게 박수를 보내면 그는 또다시 ‘지나친 검손’의 실례를 범할 터인데 그 실례에 대한 변명(?)이 듣고 싶다면 《‘아빠’라는 이름의 행복》을 펼쳐보라 권하고픈다. **▶▶**

취재 김청연 기자·사진 박신우 기자



《‘아빠’라는 이름의 행복》 오주협 지음 | 랜덤하우스중앙 | 232쪽 | 값 9,000원